광화문광장조성사업현장소장

하 진 철 대림산업 부장

"세종로를 사람 중심의 국가 상징 가로로 만들겠습니다"

한국인에게 광화문 네거리 일대는 역사, 정치, 문화의 요람이자 상징이다. 조선 왕조가 이곳에서 시작된 이후 서울의 역사가 광화문 일대를 중심으로 담겨 있고, 주요한 정치적 사건 또한 이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광장 앞에 우뚝 버티고 선 이순신 장군의 동상은 한국의 상징물이 되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광화문연가 는이곳에대한한국인들의정서를잘대변해주고있다.

하지만 광화문 일대, 특히 세종로에 대한 국민들의 아쉬움이 컸던 것 또한 사실이다. 600년전고도(古都) 한양의중심거리이자상징거리인육조거리로서, 대표적인 역사 · 문화 · 관광자원이 밀집한 지역이나, 자동차 통행 위주의 아스팔트 공간으로 건설되어 있어 국가의 상징 가로로서 또는 중심 광장으로서의 역할에 미치지 못했기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현재 세종로를 차량 중심에서인간중심의공간으로, 광화문제모습찾기 사업과 연계한 과거 육조거리의 회복을통한역사 · 문화체험 공간으로, 청계천과 경복궁을 연결하는 보행 네트워크 중심 공간으로, 그리고경복궁, 북악산등아름다운 자연 경관 조망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사업을 벌이고있다. 바로광화문광장조성 사업이다. 광화문에서 세종로 사거리 및청계광장740m에이르기까지광장을만들고있는것이다.

이 사업은 현재 대림산업이 맡아 수행하고 있다. 지난 5월 착공에 들어간 이 공사는 내년 6월 완공 예정으로 현재 28% 정도 진척되었다. 대림산업은 8차로 가운데 3개 차선을막아펜스를설치한후광장조성공사를하고있다. 하지만예쁘게디자인된펜스너머로현장 직원들의 애환과각오도 들린다.

"공사기간18개월가운데교통규제심의를 통과하는 데 4개월이 걸렸고, 광화문 일대를뜨겁게달구었던70일간의촛불집회, 그리고 문화재 출토에 따른 작업 중단 등으로8개월정도를허송세월로보냈습니다. 하지만 온 국민이 지켜보는 국가의 상징적인 가로광장을조성하는사업이니만큼시간과의싸움을벌여완공시한인내년6월까지는 차질없이공사를마칠계획입니다."

세종로일대를대한민국을상징하는가로광장으로새롭게변신시키는일을맡고있는 하진철 소장은 요즘 몸이 두 개라도 부족할지경이다. 우선, 촛불집회등으로중단된공정을만회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현재는인력과장비를 대거늘려투입하고 있지만앞으로철야작업도불사할계획이다. 공기를단축하고자하는열망은동절기 공사에서도 잘 드러난다."동절기 공사의 관건은 보온 · 양생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 장판을 여러 장 연결해 보온하는방법을강구하였습니다. 판석돌포장 시이방법을적용할계획입니다."

한편, 현장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다 보니 거의 24시간 대기상태이다. 현장 주위로많은사람들과차가오가는데다워낙 보는눈이많아예기치못한민원들이들어오기 때문이다. 혹 주말에 시위 소식이라도 들리면주말내내가슴졸이기일쑤이다.

그러나, 청계천 복원 사업 때 제1공구를 맡아2년 5개월 동안 이보다 더한어려움을 극복했던 하진철 소장은 자신감을 내보였다."공기 준수는 물론 안전과 품질, 그리고 미관등에많은신경을쓰고있습니다. 특히, 미관과관련해서는회사에서 4억원을더들여세종로지하보도설계를다시할정도로 공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내년 6월 이곳 세종로 탐방로에서 바라보는 광화문, 경복궁, 북악산과파란하늘을연결하는 자연 경관 조망은 세계 어느 광장에서도 볼 수 없는, 광화문광장만이 가지는 최고의 자랑거리가될것입니다."

이형우 · 기자 · hwlee@cerik.re.kr